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318

청소년NEWS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



1318.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면서,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

청소년 문제 효과적 상담 위해 뭉쳤다

고성지역 5개 단체 상담 네트워크 ‘해피드림’ 협약식 ... 청소년 문제 적극 개입



지난 14일 오후 2시 고성청소년수련관에서 해피드림 협약식 및 발대식이 열렸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고성청소년수련관에서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고성교육지원청, 주민협의회, 한국YMCA 흥해라 지역아동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드림 협약식 및 발대식이 열렸다.

해피드림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미래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 네트워크다.

5개 상담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개입해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 공급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모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및 효율적인 상담과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반영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박승근 기자

“어린이도 봉사활동 잘해요”

2011 아이러브 어린이 봉사단 발대식

고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재철)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간성읍사무소에서 어린이봉사단원, 학부모 및 리더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아이러브 어린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봉사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의 참뜻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러브 어린이 봉사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고성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통해 30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 기초교육, 핸드벨, 노인요양원 위문공연, 복지시설견학, 체험학습, 자원봉사자 축하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2009년 출범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아이러브 어린이 봉사단은 지난해 방송댄스를 배워 까리파스마태오 요양원, 고성소망노인전문요양원 등을 방문해 위문공연을 갖는 등 뜻깊은 봉사활동을 가졌다.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정신과 봉사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봉사단으로 인해 우리지역에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청소년 프로그램 본격 운영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지난 9일부터 다양한 정기강좌 시작

고성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일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기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강좌는 요리kurs, 레크레이션 및 오감만족, 진로체험교실 등이다.

요리kurs시간에는 떡만들기, 오감만족은 실리곤 클레이를 이용한 별자리 만들기, 레크레이션은

친밀감형성 및 마음열기 시간으로 진행한다. 진로체험교실에서는 기질테스트의 시간으로 운영된다.

야외강좌로는 숲생태체험교실, 신라화랑도클럽, 이색스포츠클럽, 청소년산악클럽이 진행된다.

아울러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자원봉사클럽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활동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모니터링, 리더십활동, 도보캠프 등으로 운영된다.

또 이색스포츠클럽, 산악클럽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로 진행되며 수시로 모집한다.

고성청소년수련관은 매달 첫째



고성군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진행 모습.

주는 실내강좌프로그램, 둘째주는 청소년합창단, 이색스포츠클럽, 청소년산악클럽이 진행되며 셋째주는 숲생태체험으로 진행된다.

또 넷째주는 청소년 놀이터로

스타크래프트게임대회, 농구대회, 댄스아카데미, 가족영화관이 운영된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요일별 신청 프로그램에 방과후 예능교실을 운영한다.

박승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보 제10호(4월 11일자) 8면에 보도된 '축구를 할 수 있어서 노년이 즐겁고 행복'이란 제호의 기사와 관련 주인공의 이름 김영훈을 김형훈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